북한매체 보도 동향

1. 농업정책

□ 농업정책

○ 농업생산에서 대혁신을 일으키자 (로동신문 3.5)

- 토지정리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공고히 하면서 모든 논밭을 기계화 포전, 규격포전으로 만들고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지방별, 지대적,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토지의 지력을 높이고 작물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 토지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부침땅 면적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간석지 개간에 힘써 나라의 국토를 넓혀야 하며, 토지보호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자연피해로부터 토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함. 농촌에 필요한 전력과 비료, 기름과 트랙터 부속품, 각종 영농설비와 자재들을 원만히 대주는 등 농촌경리에 대한 공업의 물질기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쌀이 많아야 군력도 강화되고 강성대국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하면서 농사제일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힘을 농사에 총동원, 총집중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함.

□ 과학기술

○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인 비결 (로동신문 3.1)

- 김정일은 “현대의 농사는 과학농사이며 모든 영농작업이 기술작업입니다.”라고 말함.
- 안악군 경지협동농장의 경우, 영양모에 의한 논벼재배 방법을 전 면적에 받아들여 노동력 예비를 얻어내고 벼냉상모판 자재를 종전보다 70% 정도 절약하면서 적은 투자로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해내고 있음.
- 작업반 일꾼들은 분조에 내려가 영양모에 의한 논벼 재배의 기술적 특성에 맞게 모판만들기와 씨뿌리기부터 모내기와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해나가는데 힘씀. 품종별 생육기일과 생물학적 특

성, 기상기후 및 토양의 특성 등을 파악한 후 씨뿌리기 기간을 정하고 모판 흙 두께를 정확히 보장하여 농사를 지은 결과, 노동력과 모판자재를 70%나 절약하면서도 안전한 소출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증명되었음.

- 일꾼들은 이에 기초하여 모든 작업반, 분조에서 영양모에 의한 논벼 재배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였음.

○ 농업생산의 정보화 적극 추진 (로동신문 3.10)

- 김정일은 “농사에서도 첨단을 돌파할 데 대한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신과학기술을 우리농업의 실정에 맞게 적극 연구도입하여 주체적인 영농체계와 영농기술, 영농방법을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알곡생산에서 대혁신, 대변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 자강도의 도당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농업과학분원, 강계농립대학의 연구원, 교원들은 품종배치를 과학화하고 영농공정의 정보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음. 새로 구축한 자료는 도 안의 토지에 대한 포전별, 필지별 조사자료, 북부고산지대 기상자료, 여러 가지 작물의 특성자료, 토양의 산성화 정도와 부식함량 등이 구체적으로 입력되어 있음.
- 또한 포전별 과학농사를 위한 종합표를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협동농장의 분조장에게 빠짐없이 전달하였음. 종합표를 바탕으로 협동농장의 포전별 실태를 파악하고 당면한 소석회, 유기질비료, 흙보산비료 생산, 기상조건에 맞는 품종선택 등 과학기술적 수준에서 영농을 지휘해 나가고 있음.

2. 벼농사

□ 농사차비

○ 농사차비를 깐지게 해놓은 보람 (로동신문 3.15)

- 김정일은 “농사준비를 잘하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라고 말함.
- 안악군 덕성협동농장 일꾼들은 씨뿌리기 준비를 빈틈없이 하는 것을 봄철 영농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로 보고 부식토 생산과 실어내기에 힘쓰고 있음. 농장에서는 모판 온도를 높여주어 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 바람막이 바자를 높이 쌓아올리고 있음.
- 봄철 영농준비를 위해 분조 창고마다 중소 농기구를 넉넉히 마련해 놓고 작

업반에서는 물잡이를 다그치면서 물길가시기도 질적으로 해놓았으며, 수리분조원은 제 힘으로 중소농기구 수리정비를 끝냈음.

□ 씨뿌리기

○ 벼냉상모판 씨뿌리기가 시작되었다 (로동신문 3.20)

- 김정일은 “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황해남도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에서 벼냉상모판 씨뿌리기에 대한 보여주기 사업을 조직하고 주체농법에 따라 씨뿌리기를 하도록 하였음.
- 신천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백석협동농장에서 씨뿌리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요구를 알려주고, 벼 품종별에 따르는 모내기 날짜 등을 타산하여 최적기에 씨뿌리기를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모판 고르기와 수평잡기, 씨뿌리기 등 공정작업을 기술적 요구대로 하고 있으며, 군 안의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실정에 맞게 일정계획을 세우고 씨뿌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최적기를 정하고 씨뿌리기에 들어간 옹진군의 협동농장에서는 흙보산 비료와 생물활성 퇴비를 넉넉히 마련해놓고 모판을 만드는 등 일정계획을 수행해나가고 있음. 연백벌의 농촌에서는 대용비료와 거름, 모판자재를 앞세워 마련하면서 씨뿌리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질 보장을 우선으로 놓고 (로동신문 3.24)

- 재령군의 일꾼과 농장원들은 벼냉상모판 씨뿌리기에 힘쓰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꾼들은 봉천협동농장 제4작업반을 씨뿌리기 본보기 단위로 정하고, 모든 협동농장에서 씨뿌리기를 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지난 시기와 달리 벼모를 키우는 방식에 따라 씨뿌리기 방법이 다양해진 조건과 불리한 날씨 조건에 맞게 많은 거름과 흙보산 비료를 마련하고, 모판자재, 소농기구를 넉넉히 갖추어 놓았음.
- 삼지강 협동농장의 일꾼들은 종자처리를 잘해야 씨뿌리기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으며, 선별과 소독, 싹틔우기 등 기술적 공정을 거쳐 싹틔운 종자가 작업반에 계획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언급함.

3. 밭농사

□ 이모작 동향

○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두벌농사를 실속 있게 (로동신문 3.30)

- 김정일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함.
- 신계군에서는 앞그루 감자농사 면적을 지난 해보다 수백 정보 늘였고, 3월 25일부터 4월 초까지 실정에 맞는 겹재배 방법을 받아들이는 등 앞그루감자 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운전군 송학협동농장에서는 올해 앞그루감자농사 면적을 지난해보다 1.3배로 늘리고, 일꾼과 농장원은 감자종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밭돌 거르기, 흙갈이, 소석회치기를 짧은 기간에 끝냈음. 포전마다 질 좋은 유기질 비료와 흙보산 비료를 뿌렸음.

4. 감자농사

□ 감자농사 정책

○ 앞그루감자농사와 새땅 예비 (로동신문 3.6)

- 김정일은 “인민생활문제를 풀자면 농사를 잘 지어 알곡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벌방지대 농장의 포전은 대체로 습기가 많아 제한된 논에서만 앞그루감자농사를 하였으나, 정주시의 논벼 농사를 위주로 하는 벌방지대 협동농장에서는 앞그루감자농사 면적을 늘렸음. 포전의 특성에 맞게 논앞그루감자농사 면적과 밭앞그루감자농사 면적을 늘리고 가뭄에 대비해 관수대책을 세운 석산협동농장의 경험을 오산, 침향, 용포협동농장을 비롯한 시 안의 농장에서 일반화하였음.
- 앞그루감자포전에 질 좋은 거름을 많이 내어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고 겹재배 방법을 적극 받아들였으며, 새땅 예비를 찾아내는 데 힘쓴 결과, 정주시에서는 올해 감자농사 면적을 지난해 보다 수백정보 더 늘여 생산의 담보를 마련하였음.

○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받들고 앞그루감자심기를 다그치자 (로동신문 3.28)

- 김정일은 “두벌농사는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하는 것만큼 알곡 대 알곡, 알곡 대 감자를 기본으로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연안군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지대적 특성에 맞는 우량품종의 종자확보와 냉상처리, 지력 높이기에 힘을 넣고, 유기질 복합비료 생산기지에서는 감자농사에 좋은 유기질 복합비료를 많이 생산함으로써 앞그루 감자심기를 적기에 끝내도록 힘쓰고 있음. 겨울 동안 저장고에 잘 보관했던 감자종자의 대부분을 싹틔우기 위해 야외감자종자 싹틔우기 공간을 만들기도 하였음.
- 수안군 용현협동농장에서도 포전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겹재배 방법과 부침땅의 지력과 통풍조건, 일조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방법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농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 유기질비료를 제때에 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 앞그루 감자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감자농사 준비

○ 앞그루 감자농사 준비를 실속 있게 (로동신문 3.20)

- 김정일은 “두벌농사를 실속 있게 하여 그 효과성을 충분히 나타내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올해 봄날씨 조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앞그루 작물의 생육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싹틔우기 시기부터 일정한 온습도조건을 갖추어 싹이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음.
- 선천군 원봉협동농장에서는 두벌농사야 말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도라고 하면서 태양열 온실건설과 비닐박막 씌우기에 힘쓰고 있음. 아울러 온실 안의 온습도 보장에 힘쓰고 잎덧비료 주기를 진행하여 생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고, 감자종자 생산을 기술적 요구에 맞게 해나가고 있음.

5. 축산

□ 축산동향

○ 산성이 높은 품종개량에 큰 힘을 (로동신문 3.2)

- 농업과학원 축산학연구소에서는 생산성이 높으면서도 생활력이 강한 집짐승 우량품종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힘쓰고 있음. 과학자들은 축산 과학기술을 발전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최첨단 과학기술을 연구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힘

쓰고 있으며, 연구 집단에서는 우수한 종자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완성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종자개량을 위한 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집짐승의 인공수정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공수정 기구를 제작한 과학자들은 새끼생산량이 높고 먹이 소비단위가 낮으며 빨리 자라면서도 고기의 맛이 좋은 여러 품종의 돼지종자를 퍼뜨리기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음. 이는 전국의 여러 돼지공장에 도입되어 우량품종의 돼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아울러 재래종염소를 젖을 많이 내는 우량종염소로 개종하기 위한 종축체계를 세워 우량품종을 많이 얻어냈으며, 노동력과 먹이를 절약할 수 있는 우량품종의 염소를 짧은 기간에 늘일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함.

○ 축산물생산에 계속 큰 힘을 (로동신문 3.23)

- 김정일은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고기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 올해 축산물 생산목표를 높이 세운 금야군 청년목장의 일꾼들은 집짐승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우량품종의 집짐승 마리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집짐승 배설물을 균처리하여 먹이로 이용하는 등 먹이가공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아울러 집짐승 우리의 위생조건을 청결하게 보장하기 위해 수의방역체계를 바로 세워 집짐승 육성율을 높이고 있음.
- 배천군 추정협동농장에서는 축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먹이가공을 잘하여 영양가를 높이고, 수의방역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등 돼지, 오리, 닭과 같은 집짐승에 대한 사양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있음.

6. 농업기반

□ 물길공사, 저수지, 물보장 사업

○ 물길굴 피복공사 70%계선 돌파 (로동신문 3.1)

- 김정일은 “우리는 신심과 낙관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2월 말 현재 희천발전소 건설장 전 구간에서 물길굴 피복공사 실적이 70% 계선을 넘어섰음. 물길공사 중앙지휘부 함경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자강

도 여단에서는 갱 피복공사를 마무리 짓고 있으며, 조선인민내무군 한경국 소속부대에서는 물길굴 피복공사 과제를 90% 이상 수행하기도 하였음.

- 물길공사 중앙지휘부 아래 여러 여단과 황해남도, 철도성 여단 일꾼은 공사 속도를 높이는데서 자재 보장이 가지는 중요성을 알고 많은 양의 시멘트와 자갈, 모래를 갱 안으로 운반해놓고 그날 과제를 철저히 수행해나가고 있음.

○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로동신문 3.7)

- 김정일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대로 대주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합니다.”라고 말함.
- 올해 봄철에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조건에 맞게 물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도처에서 보막이 공사, 논판물잡이 등 흐르는 물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일꾼은 현지에 내려가 시, 군, 협동농장별로 부족한 물 양을 보충하기 위한 작전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언급함.
- 각지 관개관리소 일꾼과 근로자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양수 설비 수리를 빨리 끝내 저수지와 보조 수원에 물을 채워야 하며, 지하수를 적극 이용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언급함.

□ 토지정리, 국토관리 사업

○ 곽산간석지 2계단공사 추진 (로동신문 3.14)

- 김정일은 “부침땅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간석지를 개간하여 부침땅 면적을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문제입니다.”라고 말함.
- 평안북도 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 일꾼은 여러 방조제 공사와 배수문 공사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내 공사성과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음. 1차 물막이 공사를 하여 육지와 바다의 6개 섬을 연결한 이후 곽산간석지 2단계 공사인 방조제 공사에 필요한 돌 채취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석화,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에서는 굴진을 앞세우면서 굴착기를 비롯한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으며, 청강기계화사업소에서는 대형화물자동차의 실동률을 높이면서 막돌과 흙을 제때 수송하는데 힘쓰고 있음.

○ 전국의 본보기가 될 신심 드높이 (로동신문 3.19)

- 김정일은 “국토관리사업을 군중적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 덕천시는 봄철나무 심기를 시작하여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고자 하고 있음. 시산림경영소 일꾼과 종업원은 현지를 밟아 보면서 수종별 적지선정을 하고 나무모 생산을 앞세우면서 봄철국토관리 총동원 사업에 힘쓰고 있음.

- 남포시 천리마구역의 일꾼은 올해 봄철 국토관리 총동원기간에 홍수에도 피해가 없도록 강바닥 파기를 통해 강하천을 정리하고 있음.
- 북청군에서는 여러 개 다리를 비롯한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여 북청-리원 사이의 도로를 정리하는 등 도로공사에 힘쓰고 있음. 수천그루의 가로수를 심고 여러 개의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며 수십 km 구간에 달하는 도로의 노반 강도를 높이고자 함.

○ 하천을 정리하여 새 땅을 찾았다 (로동신문 3.20)

- 김정일은 "부침땅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부침땅 면적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합니다."라고 말함.
- 연산군에서는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에도 수만 ㎥의 토양을 처리하여 수km 구간의 하천바닥을 낮추고 제방을 쌓았으며, 여러 정보의 새 땅을 찾아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사지대로 전변시켰음.
- 아울러 군 안의 여러 기관, 기업소들을 맡고 나가 노력과 운수 수단을 총집중하기 위한 대책도 세웠으며, 군의 농업부문, 국토부문 일꾼들이 하천정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설계를 완성하였음. 지휘부는 하천 바닥파기와 돌 운반, 제방 쌓기에 중기계와 수송 수단을 집중하고 제방돌 쌓기, 도로 닦기, 잔디 입히기에 힘쓰고 있음.
- 하천정리 공사장에서는 군 책임 일꾼이 작업 대상과 조건에 맞게 중기계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큰 돌 추어내기를 앞세우면서 하천 바닥파기를 진행하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에 힘썼으며, 중기계 운전수들은 하천바닥의 곳곳에 박혀있는 큰 바위돌을 파내고 하루 수백㎥의 토양을 정리하였음.

○ 국토관리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로동신문 3.29)

- 김정일은 "봄, 가을 국토관리총동원 기간과 나무심기 계절에 치산치수 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라고 말함.
- 신천군에서는 하천바닥 파내기와 석축공사, 잔디 깔기 작업, 제방 보강 등을 통해 발산리지구의 약 10km의 하천을 새로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태탄군에서는 올해 봄철 국토관리 총동원 기간에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목표를 세웠음. 이에 따라 읍지구와 부양, 광탄지구에 적지를 선정하고, 운반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나무모를 제때에 실어나르기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음. 산림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은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앞세워 보장하고 있음.

7. 산림

❑ 임업정책

○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더 많은 나무를 심자 (로동신문 3.2)

- 김정일은 “산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산림을 잘 조성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 식수절인 3월 2일, 산림조성사업은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함. 산림이 울창해야 동식물 자원이 풍부해지고 경공업 발전에 필요한 원료도 자체 자원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홍수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농경지를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면서 모든 당원과 근로자들이 산림조성과 보호사업, 봄철 나무심기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함.
- 산림조성사업에 있어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기후와 토양조건을 고려하여 적지적수의 원칙에 따라 나무심기를 하고, 실지 인민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용재림, 섬유림, 기름나무림, 식용열매나무림 등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언급함.
- 산림과학연구기관에서는 산림조성의 사업 추세를 파악해 나무육종과 산림을 조성하고, 산림보호 관리에서의 과학기술적 문제를 연구하여 산림과학을 발전시키는데 힘써야 하며, 나무심기 운동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고 강조함.

○ 최근 나무모 생산의 발전추세 (로동신문 3.2)

- 최근 나무모 생산의 발전추세는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하는데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생산경영 활동의 정보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함.
-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는 온실재배장과 야외재배장의 온도와 습도를 나무모 생육조건에 맞는 과학기술적 조종체계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함. 공업화는 원료준비 및 분쇄공정, 발효공정, 기질혼합공정 등을 거쳐 온실재배장과 야외재배장에서 나무모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집약화는 나무모가 빨리 자랄 수 있도록 각종 영양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영양단지를 이용하여 단위면적당 나무모 생산을 늘리고 생산기일을 줄이는 것을 의미함.
- 지난 시기에는 나무모를 2~4년 동안 생산했다면 나무모 생산을 공업화, 집약화 한 이후에는 1~2년 동안 키워낼 수 있다고 언급함.

❑ 산림조성 및 보호

○ 수림화, 원림화의 자랑 (로동신문 3.2)

- 김정일은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토지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라고 말함.
- 덕천시의 산에는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한 수종을 많이 심어져 있으며, 탄광에서는 동발나무를 해결하여 석탄생산을 늘리고 있음. 평원군, 박천군을 비롯한 군에서는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경치를 가꾸고 땔감도 해결하고 있음.
- 정평군 산림경영소 율성양묘작업반에서는 가지삽목에 의한 나무모 생산방법을 받아들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작업반에서는 회전식 분무장치를 이용하여 나무모 생산량을 이전에 비해 늘렸다고 언급함.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과 용천군 장산협동농장,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등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협동농장 마을에서 과일나무를 많이 심었음.

○ 봄철나무 심기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 (로동신문 3.14)

- 김정일은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는 것입니다.”라고 말함.
- 강계시의 일꾼과 당원, 근로자들은 4월 말까지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시내 중심의 여러 지구와 공원에 심어 시를 녹음이 우거진 공원속의 도시로 꾸민다는 목표를 세우고 봄철나무 심기에 힘쓰고 있음. 일꾼들은 시 안의 단위들에 나무심기 과제를 명백히 주고 질 좋은 부식토를 마련하여 봄철나무심기를 질적으로 하도록 강조하고 있음.
- 해주시에서는 시의 입구부터 중심에 이르는 수십리도로 양 옆을 따라 많은 참대나무를 심었음. 이미 자라고 있는 가로수와 참대나무 사이의 간격을 적절하게 보장하면서 도시의 건물과 도로, 가로수가 조화를 이루어 입체감을 이루도록 하였음.

○ 수림화, 원림화를 통이 크게 (로동신문 3.20)

- 김정일은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는 것입니다.”라고 말함.
- 함경남도에서 도 소재지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함흥시에서는 함흥대극장, 함흥경기장, 함흥문화전시관, 신흥관을 비롯한 공공건물 주변과 성천강제방 주변에 녹지와 꽃밭을 조성하고 수종이 좋은 나무와 꽃나무를 심었음.

- 도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도 인민위원회 지휘부 일꾼들은 노력조직과 나무모 보장, 자재보장 사업을 해나가고 있음. 도시경영설계연구소와 도시설계연구소에서는 시공지도를 통해 양묘장과 함흥시 양묘장에서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여 제때 보장해 주기 위해 힘쓰고 있음.
- 함흥시 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 도급기관들과 대학의 일꾼과 대학생들이 거리와 마을, 일터와 학교, 공원과 유원지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꽃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에 힘쓰고 있음.

○ 산림을 잘 보호하자 (로동신문 3.22)

- 김정일은 “산림보호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려 한그루의 나무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 산림을 잘 보호하는 것은 산림조성사업 만큼 중요하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건조한 바람이 자주 부는 봄철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강조함.
-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당원과 근로자들이 산림보호 사업을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해야하며, 학교와 가정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이 산에 들어가는 질서를 잘 지키도록 교양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언급함.
- 더불어 산불감시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산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방화기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단을 준비해두어야 한다고 언급함.

○ 수림화, 원림화를 전망성있게 (로동신문 3.31)

- 김정일은 “평양의 기본명산들인 만경봉과 모란봉, 대성산과 그것을 감돌며 흐르는 대동강과 보통강의 아름다운 풍치에 어울리게 시안의 여러 곳에 공원과 유원지들을 잘 건설하고 여러 가지 꽃나무, 과일나무, 가로수를 많이 심어 도시전체가 하나의 큰 공원을 이루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평양시의 거리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목표에 따라, 현장지휘부에서는 나무모와 자재보장에 우선적으로 힘쓰고 있음. 이에 따라 거리와 공원, 유원지, 주택구획에 지난 시기보다 5배가 넘는 형식이 다양하고 수종이 좋은 나무와 떨기나무를 심었음.
- 보통강구역에서는 봉화거리에 가로수를 새로 심고, 도로 양 옆에 떨기나무를 심고 넓은 면적에 꽃밭을 조성하는 사업을 짧은 기간에 해냈음. 모란봉구역과 대동강구역, 중구역에서도 수림화, 원림화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언급함.

8. 기타 작물

❑ 과수

○ 우량품종의 과일나무심기 시작 (로동신문 3.16)

- 김정일은 “수확고가 높으면서도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과일품종들을 선택하여 과수원을 조성하여야 과일생산을 빨리 늘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 봄철을 맞아 각지 과수농장에서는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키 낮은 사과나무를 비롯한 우량 품종의 과일나무를 심고 있음. 각지 과수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토지정리와 구덩이 파기, 거름 실어내기, 과일나무모 확보 등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심기 위한 준비에 힘쓰고 있음.
- 북청, 용전, 덕성 과수농장에서는 군에서 콩크리트 지지대 생산에 필요한 철근과 많은 거름을 제때에 보장해 준데 맞게 과일나무심기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고 실적을 올리고 있음.

○ 대규모과일생산기지를 번듯하게 일떠세우자 (로동신문 3.31)

- 대규모의 현대적인 과일생산기지, 과일가공기지로 세우기 위한 목표 하에 고산과수농장의 현대화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618건설돌격대원은 지금까지 수백정보의 토지정리, 수십km의 도로건설, 많은 과일나무심기와 살림집건설 등 전반적 공사를 다그쳐 1,2단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음.
- 강원도의 일꾼과 당원, 근로자들은 연초부터 공사장에 질 좋은 거름 5만 여 톤과 작업공구를 비롯한 물자를 마련하여 공사장에 보내주는 등, 618건설돌격대원을 지원하는데 힘쓰고 있음.

❑ 남새

○ 최첨단돌파전으로 안아온 열매 (로동신문 3.13)

- 김정일은 “남새농장에서 전변을 가져오자면 태양열에 의한 남새생산방법과 같은 선진적인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는 남새 생산에 필요한 연구기지와 수경온실, 태양열 박막온실, 넓은 면적의 연구포전을 가지고 남새종자와 재배기술을 연구하여 전국에 도입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작물종류와 품종의 생육시기에 따르는 영양액의 산도와 농도를 컴퓨터로 관리하고 남새재배에 적합한 온도, 습도, 빛 조건 등을 수감요소의 설치를 통해 자동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아울러 오이, 토마토 등 20여개의 작물에 수십 개의 품종을 새로 육성하고 무난방 박막온실에서의 겨울철가두배추생산 기술을 비롯한 새 기술을 개발하여 종전에 비해 생산성과를 2배 이상으로 높이고 있으며, 해마다 여러 품종에 대한 연구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 남새생산을 위한 조직사업 추진 (로동신문 3.23)

· 김정일은 "남새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남새밭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봄 남새의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영농공정별로 기술적 지도와 조직사업에 힘쓰고 있음. 일꾼들은 남새 농사를 위해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더 많은 거름을 협동농장에 보내주기 위해 힘쓴 결과, 모든 농장에 정보당 50톤 이상의 질 좋은 거름을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아울러 남새농사에 필요한 비닐박막 등의 영농자재를 제때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으며, 농업근로자 속에 깊이 들어가 주체농법에 따라 남새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해설선전 사업을 벌리고 모범을 보이고 있음. 더 많은 남새밭을 조성하고 수백동의 남새온실을 건설하며, 분수식 관수체계를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단계별 목표의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음.

· 이에 따라 시 안의 모든 농장에서는 시금치를 비롯한 남새작물심기가 일정대로 추진되고, 토마토, 가지, 고추, 수박 등 남새작물 씨뿌리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봄남새를 넉넉히 공급할 목표 (로동신문 3.30)

· 김정일은 "남새는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식물의 하나입니다."라고 말함.

· 강계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보다 높은 남새 생산목표를 세우고 더 많은 봄배추, 봄무를 생산하고자 힘쓰고 있음. 협동농장에서는 도급기관, 시급기관의 지원을 받아 남새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수천 정보에 달하는 남새밭에 정보당 수십 톤의 질 좋은 자급비료를 실어내고, 서산, 석현, 흥주지구에서 캐낸 수천 톤의 니탄을 흙보산비료의 원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등 봄남새 생산에 힘쓰고 있음.

· 시 안의 협동농장에 건설된 수천 ㎡의 온실에서 자란 봄배추, 봄무 등 봄남새모가 남새밭들에 옮겨졌으며, 협동농장에서는 남새모판에 대한 날개 씌우기와 벗기기, 물주기, 덧비료주기 등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특히 영양단지에 의한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시금치를 재배하고 있음.

9. 기타 보도 동향

❑ 농기계

○ 트랙터 출동식 진행 (로동신문 3.7)

- 김정일은 “농촌에 현대적인 여러 가지 농기계를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는 것과 함께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세우도록 해야합니다.”라고 말함.
-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출동식이 3월 4일 만경대구역과 낙랑구역에서 진행되었음. 만경대구역의 책임일꾼들은 올해 농사의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데서 찾고,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수리정비에 힘썼음. 수십 대의 트랙터에 배기관식 연유절약 장치를 새로 설치하고, 피스톤을 비롯한 30여 종에 2,400여 점의 부속품을 자체로 생산하여 수십 대의 트랙터 수리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음.
- 낙랑구역의 책임일꾼들은 연초부터 농장별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려 트랙터 수리정비 사업을 일정계획대로 추진하였음. 구역농기계작업소와 송남협동농장, 정백, 남사, 유소남새전문협동농장 등 구역 내 농장에서는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70여 종에 2만여 점의 부속품을 생산, 재생하여 트랙터와 농기계 수리정비를 마무리하였음.

❑ 비료

○ 유기질복합비료공장건설 빠른 속도로 추진 (로동신문 3.26)

- 김정일은 “농촌경리부문에서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여러 가지 미생물비료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평양시에서는 생산능력과 현대화 수준, 경제적 효과성에 있어 의의가 있으며, 규모가 큰 유기질복합비료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평양시 건설사단 청년돌격대원을 건설에 진입시키고,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고 있음.
- 평양 제1백화점, 평양산원, 평양시 재판소 일꾼이 많은 지원물자를 건설장에 보내주는 등 시 안의 여러 기관, 공장, 기업소, 대학에서 공장건설을 지원하여 건설자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음.

❑ 농촌지원

○ 농촌지원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로동신문 3.5)

- 김정일은 “농업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적 보장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봄에 들어서면서 각 도, 시, 군당위원회에서는 농촌지원에 힘쓰고 있음.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는 농업전선을 잘 도와주는 것이 곧 농업생산을 증대시킨다고 생각하여 금요노동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농물자를 들고가 물질적으로, 노력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음. 사리원시당위원회를 비롯한 시, 군당위원회의 당원과 근로자들은 걸이대, 삽 등을 비롯한 수십 종의 중소농기구를 마련하여 협동농장에 지원하였음.
- 황해남도의 시, 군당위원회 일꾼들은 파비닐과 파고무, 파철 등 유휴자재를 마련하고 비닐박막, 활창대 등의 영농물자를 자체로 마련하여 보내주었음.
- 평안북도당위원회의 경우 농촌지원 사업의 중심을 영농물자 보장에 두고 이에 힘쓰고 있으며, 신의주시, 구성시 등에서는 트랙터 부속품과 운반기재, 각종 중소농기구를 보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음.

○ 많은 중소농기구를 마련 (로동신문 3.29)

- 김정일은 “우리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농업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해마다 농촌을 힘껏 지원하여 농사를 잘 짓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천내군에서는 20여 종, 11만 500여 점의 중소농기구를 농촌에 보내주었음. 농업전선을 함께 책임진다는 열의를 가지고 군 인민위원회, 군 국토환경보호관리부, 군 인민보안서를 비롯한 군급 기관 일꾼들은 전시회에 물통, 삽, 호미, 낫 등 많은 중소농기구와 각종 농기계부속품을 내놓았으며, 전시회에 내놓았던 각종 중소농기구와 부속품은 협동농장에 전달되었음.
- 협동농장에서는 한해 농사의 매 영농공정에 필요한 중소농기구 품종을 선정하고 농장원수와 경지면적을 따져 작업반, 분조, 농장원별 중소농기구 종수와 개수를 확정하는 등 중소농기구를 많이 장만하기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음.

□ 현지지도

○ 평양남새과학연구소 현지지도 (로동신문 3.4)

- 김정일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비서인 홍석형, 정치국 위원이자 부장인 김경희, 후보위원이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 후보위원이자 비서인 태종수와 함께 평양남새과학연구에 방문함.

- 김정일은 수경온실과 태양열 박막온실을 비롯한 연구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온실마다 잘 자라고 있는 오이, 토마토 등 남새열매와 가두배추 등 잎남새 등을 보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고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음. 아울러 새로 연구하여 개발한 원형 및 반원형가지, 봄무, 단고추 등이 인민의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높이 평가하였음.
- 평양남새과학연구소가 나라의 남새 생산을 늘리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면서 연구소에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였음.

○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로동신문 3.11)

- 정일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비서인 김기남, 홍석형, 정치국 위원이자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비서인 태종수,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곽범기와 함께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 방문함.
- 김정일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가스화 공정이 완공되면 우리의 원료에 기초한 주체적인 비료생산체계가 확립될 뿐 아니라, 식량문제 해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할 것을 강조함.
-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생산실태를 파악한 후, 의식주에서 기본을 이루는 식량문제를 풀기 위해 농촌에 비료를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의무를 강조함.